

## <글말교실 소감문>

제 학습 목표는 "어떻게 말을 해야 1 대 1에 대화에서 상대방과 함께 즐거운 여행을 할 수 있을까를 알아보고 이를 통해 1대 다에서 즐거운 대화를 할 수 있는 능력을 얻어보자"였습니다. 한건수 교수님의 아주 특별한 대화의 기술에서는 비행기에 비유하여 이륙, 순항, 착륙, 3가지(서론, 본론, 결론)로 나누어서 학습하였습니다. 이것에 들어가기 전의 도입부에서는 경청의 자세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말을 많이 해도 상대방이 얘기를 들어주지 않는다면 혼자서 벽에 대고 말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개인적으로 말하기에 있어서 경청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게 대화하면 떠오르는 단어는 "왜?", "궁금하다." 그리고 "알고 싶다."입니다. 대화하고 싶은 상대에게는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궁금해지고 알고 싶어지기 때문이고 굳이 대화하고 싶지 않은 상대와 대화하게 된다면 "내가 저 사람과 왜 대화해야 하지"라는 생각을 자주 하기 때문입니다.

첫째로 서론에 해당하는 '이륙'에서 배우고 깨달은 것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륙에서는 신뢰의 공식을 통해 나와 타인의 관계를 점검하는 것에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자기중심성이 강한 사람 중에 언제나 답을 주는 사람이 있었다." 이 말을 듣고 흠칫했습니다. 상대방을 위해 말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이것이 자기중심적인 표현이었다는 것을 저도 은연중에 느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답을 주는 습관은 개선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대방과 관계에 있어서 신뢰를 기반으로 소통과 공감을 통하여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지 상대방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고 답을 원하는 사람은 있지만 모든 상황에서 문제 해결을 위해 답을 강요하는 것은 좋지 못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둘째로는 본론에 해당하는 '순항'에서 배우고 깨달은 것입니다. 순항에서는 자기중심성을 낮추고, 신뢰를 높이는 대화의 기술을 인식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나는 말하기 위해 듣고 있는가, 상대방을 이해하기 위해 듣고 있는가?" 코치는 돕는 자, "상대방이 지금 상황을 자각할 수 있도록 돕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2020년 2학기에 수강했던 인생 설계와 진로 수업에서 황동조 교수님(코치님)께 코칭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학업에 대한 어려움으로 진로를 걱정하던 때에 교수님께서 "지금 너의 상태를 글로 적어보고 생각하고 있는 사항에 따라 점수를 매겨봐라."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지금 나의 상태가 어떤 상태이며 무엇을 좋아하고 해야 하는지 우선순위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터치포인트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대화라는 터치포인트를 통하여, 자아성찰을 촉진 시키고 겪고 있는 문제를 객관화시키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마지막, 셋째로는 본론에 해당하는 '착륙'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착륙에서는 작은 변화 경험이 중점입니다. "무엇이 틀렸는지가 아니라 무엇이 올바른지에 초점을 맞출 때 우리의 삶은 놀랄 만큼 향상된다." 평소에 큰 것 혹은 멀리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쉽사리 부정적인 생각에 빠지곤 합니다. 제게 이런 습관은 게으름과 무기력을 유발합니다. 그렇기에 내 안에 있는 \*밝은 점을 찾아서 원본적인 삶은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감상문을 쓰면서, 다시 값진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수업을 들을 당시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둔하게도 최근에 배웠던 좋은 대화의 기술과 태도를 잃고 "상대방에게 상처를

졌을 수 있는 말을 했었구나”라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주기적으로 제가 쓴 감상문을 보고 복습하면서 내 사람에게 따뜻하고 지탱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재기하였습니다. 긴 글 시간 내어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터치 포인트 : 특별한 이슈를 가지고 상대방과 대화하는 순간.

\*밝은 점 : 올바른 것.